

이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의 참여 현황

□ 일 본

- '08년 이란과 일본사이의 교역규모는 약 200억불 정도로 집계됨.
- 일본은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대상국으로 '09년 1/4분기 일본에 대한 이란의 원유수출은 519,518 bpd를 기록
- '04년 일본 INPEX사는 이란 최대 Azadegan 유전개발 프로젝트 지분 75%를 취득하였으나, 이란의 핵문제 등으로 인한 대미관계 영향, 금융 조달 애로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'06년 이란정부에 의해 지분율이 10%로 축소됨
- '09년 5월, 이란·일본 상공회의소 공동 주최 세미나 개최(도쿄)된 바 있으며 Nahavandia 이란 상공회의소장, Hayashi JETRO 사장을 포함한 양측 주요기업 대표단이 참가하여 양자간의 경제협력 및 민간분야 통상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.

□ 중 국

- 이란의 제2위 원유 수입국으로 '09년 1/4분기중 대중국 원유수출은 484,093 bpd를 기록.
- CNPC(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)은 '09. 6월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 11단계 개발 프로젝트 운영권자인 프랑스 Total사를 제치고 47억불 규모의 수주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.

- 또한, CNPC는 '09년 1월, 17억불 규모의 North Azadegan 유전(매장량 60억 배럴) 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.
- SINOPEC 그룹은 '07. 12월 YADAVARAN 유전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개발(BOD Operation)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.

※ 매장량: 원유 32억 배럴, 천연가스 2.7 tcf

□ 인 도

- '08년 이란으로부터 426,360 bpd의 원유를 수입하였으며, 이는 전년 대비 9.5% 증가한 수치임.
- 한편, 이란은 정유정제시설의 부족으로 내수용 가솔린과 경유의 상당 부분을 인도로부터 수입중임.

□ 말레이시아

- SKS 그룹은 '08. 12월 이란 국영석유회사(NIOC)와 140억불 규모의 Golshan, Ferdowsi 가스전 개발 및 LNG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함(원유 및 가스 컨덴세이트 수출계약 포함).
- 이란 석유부 측은 Golshan, Ferdowsi 가스전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수차례 요청해 온 바 있음.

□ 인도네시아

- 인니 국영석유회사 Pertamina는 지난 2006년 이란 국영정유회사(NIORDC)와 가계약을 체결하고 200,000bpd 규모의 인도네시아 정유소 건설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나, 최근 동 프로젝트 추진을 2016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한 바 있음.

□ 파키스탄

- 이란-파키스탄 양측은 지난 5월 이란산 가스를 파키스탄으로 수출하는 Framework Agreement 합의 및 가스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추가 세부협의를 진행 중
 - 향후 일일 공급량 60million입방미터를 목표로 파키스탄 발전소에 공급되어 약 5,000MW 전력생산에 사용될 예정임.
- 동 건 관련 이란-파키스탄-인도를 연결하는 IPI 가스파이프 라인이 최근 몇 년간 추진 중이었으나 현재 인도 측에서 불참의사를 밝힌 상태임.

□ 한국

- '09년 1/4분기 244.989bpd의 이란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집계됨. 이란은 한국의 네 번째 원유공급국이라 소개

□ 대만

- '09 1/4분기 82,422bpd의 원유를 수입하였으며 이란은 대만의 세 번째 원유 공급국임.

□ 러시아

-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Gazprom은 '09. 2월 이란측과 South Pars 가스전 개발, 오일 드릴링을 포함한 각종 신규 프로젝트 관련 MOU를 체결하고 향후 본격적 참여를 시사한 바 있음.

□ 오스트리아

- 오스트리아 최대 에너지기업 OMV는 NABUCCO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(터키-불가리아-루마니아-헝가리-오스트리아) 컨소시엄의 대표 회사로서, 주요 가스 공급원인 이란 측의 동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 중임.

- OMV는 '09. 10월 현재 Iran LNG 프로젝트 지분참여를 추진 중

□ 프랑스

- Total사는 기존에 South Pars 가스전 11단계 개발 프로젝트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계약조건 및 대이란 제재상황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오다가 '09. 6월 중국 CNPC가 Total사 대신 개발계약 체결
- 동 11단계 LNG 생산 목표량은 10mmt/yr임
- 이란 석유부측에 따르면, 동 가스전의 up-stream 사업자는 CNPC로 대체되었으나 downstream은 Total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.
- 최근 Total측은 본사 대변인을 통해 Total은 아직도 이란 내 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.

□ 독일

- '06년 독일 ABB Lummus사는 이란 국영석유회사(NIOC) 및 이란기업 컨소시엄 측과 Bandar Abbas 정유소 프로젝트 관련 \$512mil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.
- 동 정유소의 가솔린 생산을 일일 4.8mil 리터에서 13mil 리터로 증산

□ 이태리

- 이태리 ENI는 10억불 규모의 Darkhovin 유전 2단계 개발에 참여중임 (50,000bpd에서 160,000bpd로 증산 목표)
- 이태리 EDOSON사와 이란 NIOC는 '08. 1월 \$107mil 규모의 Dayyer 해상가스전(페르시아만 위치) 탐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.

□ 폴란드

- 폴란드 에너지 회사 PGNiG는 IOOC(Iran Off-shore Oil Company)와 천연 가스 reserve 관련 협력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.

□ 스페인

- 스페인 Respol사는 Shell과 공동으로 South Pars 가스전(13단계)개발 및 LNG 플랜트 프로젝트(15.6mmt/yr 생산예정)를 추진 중 이었으나, '08년 Shell이 철수 의사를 밝히는 등, 현재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.
- 이란 측은 '09. 5월말까지 최종 시한을 설정하여 Respol과 Shell의 참여 의사가 더 이상 없을 시 다른 외국 파트너로 대체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음.
 - 이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 협상이 진전되어 '09. 10월 현재 이란 측과 pre-FID(Final Investment Decision) 단계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힘.

□ 스위스

- 스위스 EGL은 '08년 이란 측과 약 130억불 규모로 25년간 장기가스 구매계약을 체결함.

□ 터키

- '08. 11월 터키-이란 양국은 이란 가스의 터키 경유 유럽수출, South Pars 가스전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한 가계약을 체결함. 터키의 투자액은 약 35억불 규모로 알려짐.
 - 올해 말 최종 합의도달을 목표로 협상 추진 중임

□ 영국

- 오일메이저 Royal Dutch Shell은 '08년 South Pars 가스전 13단계 프로젝트에서 철수하였으나, 향후 다른 단계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기도 함.
- 최근 동사는 이란 측의 제안(early production 조건 등)을 수용하여 협상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함.
- '09. 11월 현재 이란 측과 pre-FID(Final Investment Decision) 단계

□ 베네수엘라

- '09. 9월 Chavez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베네수엘라는 일일 20,000배럴의 가솔린을 이란에 공급키로 이란 측과 합의한 바 있음.
- 또한, 양측은 \$760mil 규모의 에너지 분야 상호 투자에 합의함. 베네수엘라 측은 이란 South Pars 가스전 12단계 프로젝트에 10% 지분투자(\$760mil)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이란 국영 Petropars와 체결하고 이란 측도 베네수엘라 유전개발에 동일한 규모로 투자키로 합의함.

<출처 : '09. 11 Iran Daily, 및 언론 보도내용,
이란 주요 당국자 면담 시 파악 내용>